



일주문

- 무의탁노인돕기 ARS 개통**  
성운 인덕원 이사장은 무의탁노인돕기 ARS 모금전화를 개통했다. 한 통화에 2,000원. 전화번호는 02)700-0747.
- 영양 스님 14주기 추모제**  
원혜 봉은사 주지는 27일 오전 11시 봉은사 대웅전에서 영양스님 열반 14주기를 맞아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 6월 다보법회서 법문**  
진월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는 27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6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 불교자원봉사단 발족**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은 23일 노원구 사천왕사에서 '제13회 불교자원봉사단 발족식'을 가졌다.
- 종동중·고 총동문회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서울 소피텔메리어호텔에서 열린 종동중·고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 문화시설 확충방안 강연**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26일 영암도기문화센터에서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 고별 주역원전 강좌**  
김석진 동방문화진흥회장은 7월 3일부터 흥사단 3층 강당 및 동방문화진흥회 강의실에서 고별 주역원전강좌를 개강한다.
- '불교와 자연보호' 강연**  
이양길 직지사자연수련장은 15일 김천시청 강당에서 동회 임원 3백 명에게 '불교와 자연 보호'를 주제로 강연했다.
- 심리상담연구소 개원**  
반기원 불교상담개발원장은 30일 종로구 사간동 126-6번지에 '그래! 심리상담연구소'를 개원한다. 02)722-2757



교불련 정대스님 초청 조찬회

연기영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22일 롯데호텔에서 '정대 큰스님 초청 조찬회'를 봉행했다. 교불련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조찬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새천년민주당 김기재 최고위원, 한나라당 하순봉 부총재를 비롯 22명 교수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대스님은 법문을 통해 "심오한 불교적 진리를 생활 속으로 이끌어내어 종교적 가치를 발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사 주지 마근 스님

조계종 3교구 본사 신흥사는 19일 산중총회에서 마근스님을 새 주지로 선출했다. 마근스님은 76년 부산 범어사에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하고 지난 92년 낙산사 주지, 95년 백담사 주지를 지냈으며, 지난 1월부터 신흥사 부주지 소임을 맡아 왔다.

축구 국가대표 안효연 동국대에 2천만원 기탁

안효연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는 8일 동국대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송석구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안 선수는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항상 다짐했다"며 "불교종파형편 건립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선수는 올 2월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후 일본의 교토퍼플상가팀에 입단,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점술 넘어 변화의 철학 제시"

EBS '주역과 21세기' 강의 성태용 교수

"<주역>을 단지 점치는 책으로 알고 있는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EBS 고전특강 프로그램인 '주역과 21세기'의 강사로 초빙된 성태용 교수(건국대, 본지 논설위원). 성 교수는 "<주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면서, <주역>을 점적으로 폄하하는 세태를 바로 잡는 데 일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며 7월 2일부터 3개월간 진행할 <주역>의 강좌의 방향을 설명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주역>은 한국, 중국, 일본의 정신세계의 중심에 위치한 중요한 고전이자 대중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어 온 책이다. 그러나 너무 어렵다 보니, <주역>의 독자 대부분이 '변화를 읽어 세상을 이롭게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길흉화복만을 점치기 위해 <주역>을 푸는 데에만 집착했다. EBS 역시 <주역>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철학적인 안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해 고전특강 시리즈에 <주역>을 올리지 못했다. 성 교수는 "3개월간의 강의로 <주역>의 모든 것을 펴낼 수는 없지만, 시청자들에게 그 본질을 보는 계기를 만든다면 성공적인 강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의 '주역과 21세기'는 7월 2일 오후 10시 40분부터 EBS에서 첫방송된다. 오종욱 기자

"도시인에 정법 전달"

미타불교대 설립 대명 스님

"도시인의 일상에 찾아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교양대학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13일 서울 방학동에 미타불교대를 설립한 대명스님(동두천 불암암 주지)은 "미타불교대학은 도시민에게 불교의 정법을 가르치는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설립 이유를 밝혔다. 서울 방학동에 30여 평 규모로 문을 연 미타불교대학에는 현재 기초교리, 불교입문 등을 배우는 '기초반'과 <금강경>, <반야심경>, <아함경>, <법화경> 등을 강독하는 '고급반'이 개설돼 60여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고 있다. 대명스님은 "현재 수강생이나, 개설 과목 수는 부족하지만, 내년 3월 정식 개원을 시작으로 강북지역 포교에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교양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만행>의 저자 스님 등을 초빙하는 등 다양한 강좌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02)955-6411 오종욱 기자



日 이시카리 라이온스클럽 기탁성금 본사 故 이수현 씨 부친에 전달

"국내의 불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동경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故 이수현군의 아버지 이성대 씨(부산 이현길세무회계사무소 실장·사진 오른쪽)는 22일 본사를 방문, 일본의 이시카리 라이온스클럽이 본사에 기탁한 이수현동기성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수현이를 일찍 보낸 슬픔이 크지만 많은 분들이 아지도 잊지 않고 위로를 해주니 너무 고맙다"며 "수현이의 죽음이 계기가 돼 한일관계가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w.km@buddhapa.com



상월원각 대조사 27주기 열반대제

천태종 종창조인 상월 원각대조사 27주기 열반대제가 18일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2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은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국민화합을 이루는데 불자들이 원력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추도사를 통해 상생의 길을 강조했다.



진각종 제1회 울릉 문화축제

진각종은 20일 종조 회당 대조사 탄생성지인 울릉도 도동항 소공원에서 효암 통리원장을 비롯한 중단 스승과 정규화 군의회 의장 등 주민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울릉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실내악단 오느름의 국악공연으로 화려하게 개막된 축제는 국악인 최진숙씨와 송포 사물놀이패, LMB싱어즈가 찬불가와 국악 등을 연주·열창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불대양후낙성출



나주 불회사 대양루 낙성법회

나주 불회사주지 정연은 16일 백양사 방장 서용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양루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서용스님은 "사부대중이 힘을 합쳐 중흥에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불회사 대양루는 80명의 2층 목조건물로 종무소와 불자들의 교육 및 수행공간으로 활용된다.



대구지역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

대구광역시신도회는 16-17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제9교구 사찰신도회 및 대구지역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조계종 포교원의 후원을 받아 중앙신도회 및 동화사신도회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대구지역 사찰, 신도회, 신행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명관 스님 다비식을 마치고...

5월 30일 세수 50, 법랍 31세로 명관스님이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하늘 아래 아무 불려봐도 대답없는 그 이름. 생전시에는 중단 발전에도 앞장서고 정의를 굽어 문도회 발전에도 힘을 아끼지 않은 스님이 오랜 투병 끝에 마침내 세연을 마쳤는데 짧디짧은 그 생애가 못내 아쉽습니다. 임직하기 전날 문장 종산스님이 병문안 차 들르자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하며 병상에 누워있던 것을 못내 죄송해 하던 스님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평소 문도 어른 스님들을 존경하였고 후학들을 잘 길러주고 병들어 세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도회 걱정에도 여념이 없었던 명관스님, 스님의 열반을 당하자 한 스승 아래 사형사제는 몇 겹 천생 인연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6월 1일 문장 종산스님과 문도회 스님들, 화엄사 주지스님과 소임자스님들과 화엄승가

대학 학인 등 3백여명이 모여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잘 치렀습니다. 스님과 가까웠던 문도반들과 상좌 스님들이 슬픔을 하였습니다. 스님이 남기신 유지가 항상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화엄사 도량에 재가 된 스님의 육신을 뿌렸습니다. 명관스님, 허전한 마음 어찌 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고 태어나 성불에의 원력을 펴고 남김없이 이루어기를 기원드립니다. 화엄도도회장 중국 합장

**(주)성산항공여행사 개업 15주년 기념**

**중국 오대산. 화엄사. 운강석굴 성지순례 5일**

■순례 경비 : 69만원

■순례 기간 : 2001. 7월 30일 ~ 2001. 8월 3일 (5일간)

■신청 기간 : 2001. 7월 15일까지

문수보살께서 현신 하신 정량산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화엄사,현공사까지 직항편으로 알차게 모십니다.

■성지 순례 일정

1일 (7/30)	인천 / 태원(1박)
2일 (7/31)	태원 / 진사, 쌍탑사 - 오대산(1박) / 불광사, 남선사
3일 (8/1)	현공사, 대동(1박) / 운강석굴, 상,하 화엄사, 구룡벽
4일 (8/2)	오대산(1박), 남선사, 현통사, 탐원사, 리후사, 보살정(대운수사), 남대
5일 (8/3)	오대산 / 용천사, 금각사 태원 / 산서성박물관 - 인천(21:00) - 전 일정 호텔무숙 -

포함사항 항공, 호텔, 입장료, 식사, 중국비자비, 중국공한세, 보험료

\* 불 포함: 인천 공항세  
· 구비서류: 여권/자택주소/전화번호  
· 여권없는분: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본 1매, 여권인지대 45,000

여행사: 중국 산서성여유국  
여행사: 오대산 상원사, 무주안국사, 해남 대둔사, 영추사, 본원정사, 심곡사, 관음정사, 영산법화사

문의: (주)성산항공여행사  
대표: 02) 720-0111  
담당: 이규슬 팀장 011-274-0355  
김승현 과장 011-440-2580  
E-mail: tour Love@kornet.net

**"티베트 천지의 학생불자들이 모시면 가장 싸고 편하게 다녀오십니다"**

**티베트성지 순례**

라싸, 시가체, 장채, 티베트불교 15대성지 순례

포탈라궁, 순례의 길, 조강, 노부링카, 세라사, 짜방사, 간덴사, 타쉬룬 포사, 천장터, 바이취사, 설산, 암드룩쑤, 팔각가, 신산, 장조산성 등

참가비용 : 스님 165만원, 일반인도 175만원  
· 출국세, 비자비 외 일체 경비 포함

출발날짜 : 7월 25일 수요일(7박 8일)

문의 : 02-722-8121

**티베트 15대 불교 유적+네팔 불교 4대 유적 2개국 성지 순례(10박11일)**

출발날짜 : 7월 14일(토), 8월 11일(토), 8월 25일(토)

참가비 : 195만원

고산병 예방을 위해 전원 4인승 산악용 지프 탑승

주최: 세계일류여행사, 티베트대학 한국학생불자회